



지정소식지

8 보름내

B O M N A E
No.260 AUGUST 2012

지난 8월 11일~12일 송암 수상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베어풋대회 장면

목 차

04	포커스	자연을 달리는 짜릿한 레일바이크
06	춘천은 지금 I	새롭게 바뀐 시내버스 노선
08	춘천은 지금 II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이의신청
10	행정뉴스	전선 지중화사업
14	지역경제 살립시다	(주)보템
16	작목반원 여러분 바쁘시죠⑤	남산면 단호박 작목반
17	문화소식	2012 춘천국제연극제
18	우리시 이런마을	석사동 춘천교대와 앞 마을
20	춘천역사기행	청평사 I
22	예산사랑방	상상마당 유치 및 어린이모험공원 조성
24	문화사랑방	'구름빵' 캐릭터 태국시장 진출
25	같은생각 같은취미⑧	춘천대금소리사랑회
26	춘천이야기	춘천을 빛낸 런던올림픽 영웅들
32	의회소식	
34	봄내골소식	
35	알림마당	
39	2012 춘천월드레저대회 일정표	
40	광고	2012 춘천월드레저대회



표지이야기

2012 춘천월드레저대회가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송암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춘천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에 이어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67개 세부종목에 35개국 1만1,000명이 참가한다. 춘천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이 대회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누구나 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



“내 코도 길~ 지...?” 춘천인형극제 2012

어린이들이 인형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월 8일 춘천인형극제 2012 개막 퍼레이드 중 어린이가 피노키오와 대화하고 있다.

어린이가 주먹을 코에다 갖다 댄다. 피노키오의 커다란 코를 흉내낸다.

어린이에게 꿈을, 모두에게 사랑을!을 주제로 한 춘천인형극제 2012가 8월 15일 성황리에 끝났다.

해외 6개국 8개 극단과 국내 39개 전문극단, 30개 아마추어 극단 등 총 77개 극단 7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매일 저녁 펼쳐진 마술, 오케스트라,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축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눈을 즐겁게 했다.



춘천에 또 하나의 관광코스가 생겼다

북한강 옆에 끼고 숨바꼭질 그 특별한 경험



1939년 개통돼 70년간 비둘기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다니던 경춘선 철길에 레일바이크가 달리고 있다.

지난 8월 10일 개장한 강촌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강촌역 편도 8.2km와 경강역~백양리역 왕복 6km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레일바이크 구간은 북한강을 끼고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운행은 하절기 1일 6회, 동절기 4회로 2인승은 2만5천원, 4인승은 3만5천원이다.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레일바이크 김유정역은 1920년대부터 2010년까지 도 연고 출신 소설가가 출간한 책 100권으로 '북 스테이션'을 꾸며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을 달리는 짜릿한 레일바이크



도심 내부순환-10대 외부순환-6대 새롭게 신설

춘천시, 현장 심층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거쳐 확정
100번=중앙로~후석로, 200번=호반순환로~만천리
내·외부 노선 교차점에 환승 정류장 설치, 시간 단축

춘천시의 시내버스가 9월 3일부터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된다.

이번 개편은 예전처럼 외부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시가 직접 주민 및 이용자, 버스 기사들에 대한 현장 심층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심을 순회하는 10대의 내부 순환버스와 6대의 외부 순환버스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이용객들이 순환노선을 쉽게 알아보도록 내부순환 노선은 100번, 외부순환 노선은 200번을 부여했으며

내부 및 외부 순환노선의 신설로 아파트 등 집단 거주 지역에서의 시내버스 이용이 수월해졌다.

100번의 내부 순환버스는 중앙로~ 공지로~ 춘천로~ 후석로를 반복해 운행하고, 200번의 외부 순환버스는 호반순환로~ 시외버스터미널~ 춘주로~ 성원초교~ 봄내초교~ 도경찰청~ 만천리를 순회한다.

순환버스 노선과 읍·면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교차점에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 손쉽게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승차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과 250-3369]



버스노선 변경 사항

26번, 56번 버스	거두·창촌 농공단지와 연계해 운행
외부순환 노선	근화동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노선 신설로 직장인 출·퇴근 용이
150번 버스	외지인들이 춘천의 관광지를 쉽게 찾도록 종점을 남춘천역으로 변경(춘천역 경유)
18-1 버스	오봉산, 청평사 관광객들 수요에 맞춰 매일 운행
101번 버스	보충대 명칭과 같은 102번으로 버스 번호 변경
20번대 버스	중앙로를 거치지 않고 후평동에서 동내면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선 배치
30번대 버스	학곡리 공영차고지 주변에 충전소 이전 및 기사 식당과 같은 휴게시설 설치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학곡리에서 출발

통학택시 요금 1인당 1,000원

2학기부터 3명 이상 탑승 시 ... 통학버스 요금과 형평성 위해
현금적립식 전용카드 발급 ... 초과 요금은 시가 부담하기로

춘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고교생 통학버스·택시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2학기 때부터
통학택시 이용 요금을 3명 이상 탑승할 경우 학생당
1,000원으로 책정했다.

단 3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이용
하려면 8월부터 학교별로 비치되는 탑승 신청서를 작
성, 승차할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된 통
학택시 정액요금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요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1학기 때는 실제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적용됐었다.

현재 통학택시는 강원사대부고와 강원고, 봉의고,
춘천여고, 유봉여고 등 5개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
으며 내년부터는 지역 내 전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요금 결제방식도 개선해 현금적립식 전용카드를
학생마다 발급해주고, 초과 요금에 대해선 시가 부담
하기로 했다. 또한 통학택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개
인택시조합 콜택시는 470대로 3부제에 따른 1일 운
행 대수가 300대 규모여서 최대 1,000명까지만 수용
할 수 있다. 1학기 통학택시 이용자는 1일 평균 150
여 명이었다.

[교통과 250-3034]

전철역~강원대·한림대까지 최단 거리로 버스 달린다

아침·저녁 통학 시간대 배차 간격 20분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 수도권
통학생들이 많은 강원대와 한림대 학생들의 의견
을 수렴해 새로운 노선을 마련했다.

현재 두 대학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중앙로를
돌아가도록 돼있어 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편된 노선은 아침, 저녁 통
학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며, 전
철역에서 학교까지 최단 노선으로 연결되도록 했
다.

[교통과 250-3369]

새로 바뀐 시내버스 운행안내

*강원대 신설 노선(버스 번호 10번)

남춘천역→ 석사아파트→ 우석초등학교→ 강원사
대부고→ 강원대 후문 →강원학생과학관 입구→
강원대 정문→ 춘천지방법원→ 남부사거리→ 시외
버스터미널→ 퇴계일성아파트→ 남춘천역

*한림대 신설 버스 (버스 번호 12번)

소양강댐 → 소양2교 → 춘천역 → 중앙로로터리
→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 춘천여고 → 한림
대 → 춘천기계공고→ 강원고 → 한림성심대



등급 부적합지 전면 재조사 요구, 강력 대응

다시 그려지고 있는 춘천의 개발 족쇄

무엇이 문제인가?

- ① 제2의 그린벨트 및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재현 우려
- ② 확정되면, 기업유치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 큰 지장
- ③ 개발 불가능한 1등급 부지 대폭 확대로 심각성 커

도움말

생태 · 자연도란?

환경부가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산 · 하천 · 습지 · 호수 등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경관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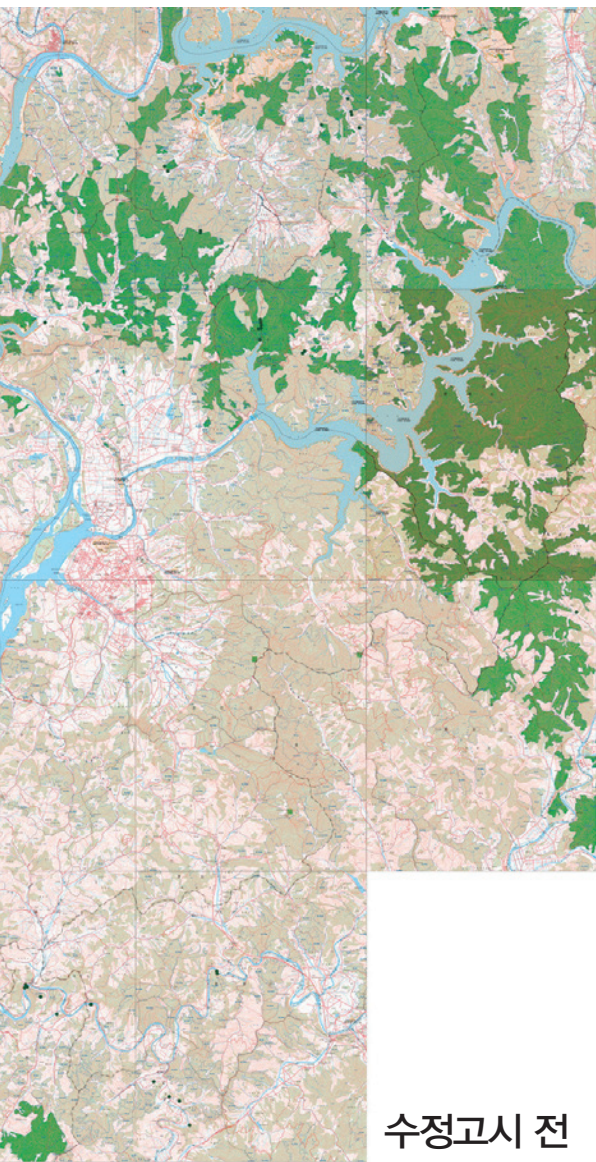
- ▶ 1등급(보전 복원해야 하는 지역)
- ▶ 2등급(1등급에 준하며 개발과 이용으로 훼손이 최소화돼야 하는 지역)
- ▶ 3등급(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뉘며, 1, 2등급이 많을수록 개발에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도 개발부지 절대적 부족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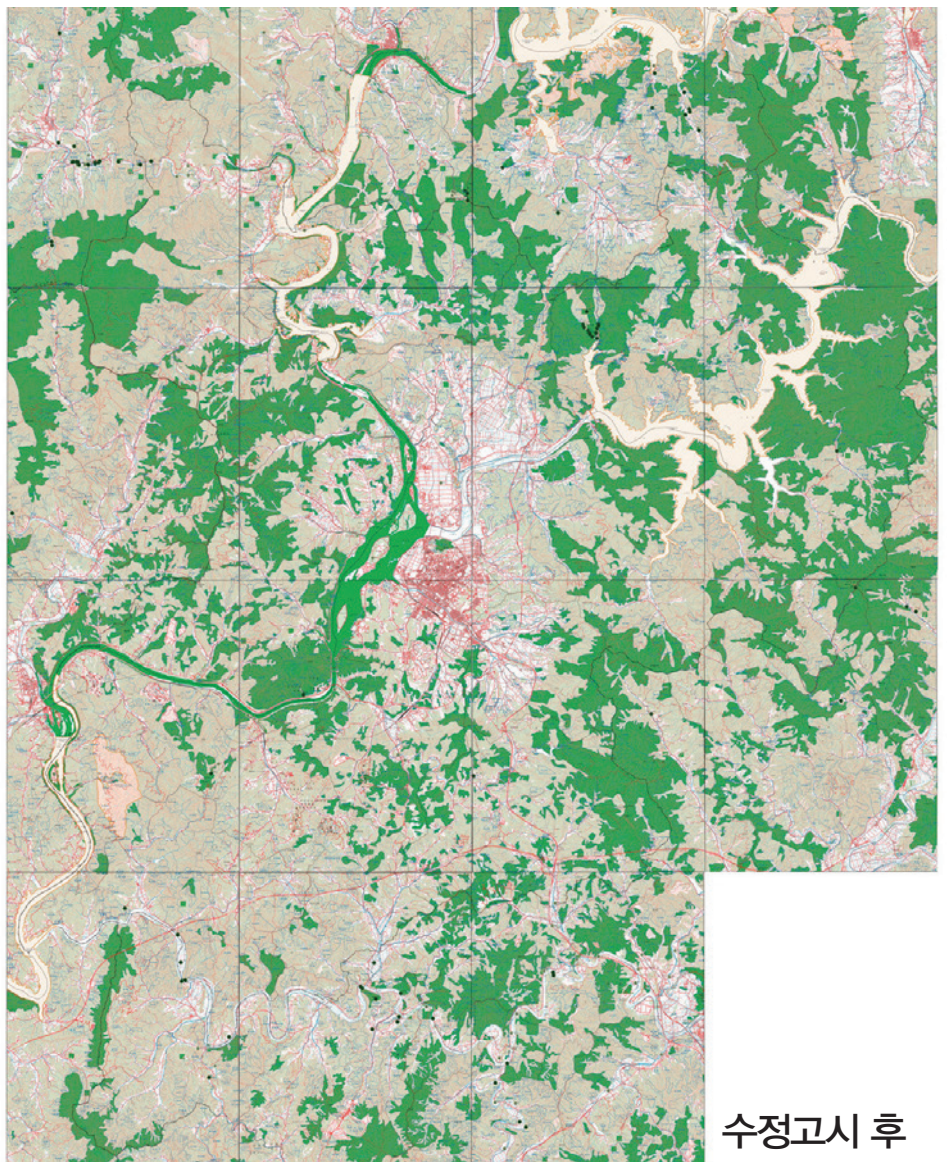
춘천시는 환경부의 생태 · 자연도 수정고시안이 제2의 그린벨트 또는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의 재현이 우려됨은 물론, 개발의 족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기로 했다.

시는 자연환경 보전권역을 상식 이하로 확대한 이번 고시안은 신뢰성이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지역 사회와 연계, 강력한 항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가 강력 대응기로 한 것은 현재도 개발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 첫 이뤄진 생태 · 자연도 일제고시에 대한 수정고시안을 작성, 이달 중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연말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수정고시 전



수정고시 후

▲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에 나오는 춘천지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 전·후 이미지 자료. 개발을 전혀 못하는 1등급 지역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자료 032-560-7948-9>

이의신청 왜 했는가 ?

- ① 개발지역 1등급 지정은 규정위배
- ② 1등급에 포함시킨 생태 교란지역인 숲가꾸기지역 등은 1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1등급 증가율, 전국은 29%, 춘천시는 92%

춘천시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1등급 부지가 대폭 확대됐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춘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1등급의 비율은 15.97%에서 30.6%로 2배 가까이(92%) 증가했다. 이는 전국(29%), 강원도(15%) 평균 증가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개발에 제한을 받는 2등급도 늘어났다. 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지역은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도 1등급에 포함시킨 오류가 다수 드러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전면 재조사를 관철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 범례 >	
생태·자연도	
	1 등급
	1 등급(지형)
	2 등급
	2 등급(지형)
	3 등급
	별도관리지역
S	별도관리지역

[환경과 250-3424]

어? 전봇대가 모두 어디로 갔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라, 도시미관과 보행자 안전 개선 확보

시내 중앙로 도심 중앙에 전주(전봇대)가 사라지고 (?) 있다. 춘천시가 2009년부터 한전과 함께 전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0개 구간 8km의 거리에서 전주가 뽑힌 것이다.

최근 금강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로 로터리를 중심으로 ▷춘천역~운교로터리, ▷도청~중앙시장 간 중심지 도로가 전선없는 거리가 됐다.

올해까지 121억원이 투자되어 지중화가 이뤄진 곳은 ▶2009년도에 도청~중앙로로터리, 강원대사대부고~운교로터리 구간 ▶2010년도에 남부로, 온의동 롯데마트 주변, 온의담갈비골목 ▶2011년도에 남부사거리~온의담갈비골목 구간이 완료됐다.

▶올해는 ▷중앙로로터리~구 미군부대 정문(금강로) ▷구호광장~산림조합 앞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로구간은 명동 지하상가 공사 때

중앙로로터리~운교로터리, 중앙시장 구간을 시작으로 전선 지중화가 추진돼 왔다. 도심 중심 거리는 이번 금강로 지중화를 마지막으로 한결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개선됐다. 구호광장~산림조합 간 공사는 이 달 착공, 12월 준공된다. 내년에는 남부로~중앙로(약사리고개) 구간이 지중화된다. [도로과 250-3162]



전봇대가 사라져 깨끗해진 금강로

중고 가전제품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상태가 양호한 제품 연락하면 무상수거 ... 폐기물 스티커 구입 안해도 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수거해 수리 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재활용품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춘천시는 지정재활용센터를 종전 1곳에서 3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

재활용센터는 법적 기준을 갖춘 민간 중고매장을 지정해 가정이나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가전, 가구를 수리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시는 올 상반기 신청을 받아 춘천시재활용센터(근

화동), 청명산업(동면 장학리), 신바람 할인매장(효자2동)을 재활용센터로 지정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책장, 책상, 소파, 옷장 등이 있으면 시청 청소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수거해 간다. 시 관계자는 “수거물품은 수혜자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중고제품에 한하여 무상수거함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청소행정과 250-3133]

청소년이 원하는 주말 프로그램 대폭 늘린다

컴퓨터 · 헤어 ·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다수 희망, 적극 반영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청소년주말 프로그램이 운영 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지난달 시내 19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프로그램 등 설문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내년도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주5일 수업에 맞춰 올해부터 이뤄지는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재 23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춘천시 관련부서에서 1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선호도, 추가 희망프로그램, 운영시기, 인원, 수강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학생들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 컴퓨터 관련 강좌, 헤어,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다수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운영일은 토요일, 적정 참여인원은 10~ 15명을 선호했다. 또 무료 운영도 많이 희망했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중 사설수강 시설 여건 등을 검토, 내년도 사업에 학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시민모니터 요원 간담회에서 일반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 데 따라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청소년과 250-3104]

법원 · 검찰청 앞 ‘칙칙했던 콘크리트 축대길’은 옛말

야트막한 언덕, 꽃동산으로 꾸며져 ... 이미지 개선도

높고 칙칙했던 콘크리트 축대로 이어졌던 효자동 법원 · 검찰청 앞이 야트막한 꽃동산 언덕으로 바뀌었다.

춘천시는 최근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법원, 검찰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을 준공했다. 지난 5월부터 칙칙한 콘크리트 축대 150여m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

예전의 축대구간에 자연석을 쌓고 철쭉과 영산홍 3,5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번 공사로 정문 양편 둔덕이 낮아지면서 법원, 검찰청사 전경이 시원하게 트였다.

시는 내년 봄에는 꽃이 활짝 핀 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진입 구간의 경관이 개선되고



법원, 검찰청의 이미지도 부드럽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과 250-3186]

캠프페이지(구 미군부대) 물탱크 ‘전망대’로 탈바꿈 한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 ...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물탱크가 전망대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선보인다.

춘천시시는 물탱크 등 4개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음에 따라 격납고 2개 등은 시민생활체육시설과 어린이와 장애인시설로 각각 활용키로 하였다.

또 조종사 숙소와 물탱크는 아직 구체적인 최종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중 우선 물탱크에 대해서는 전망대 겸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물탱크는 높이 54m로 정상부에서는 의암호를 비롯, 춘천시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다. 물탱크 밀면넓이는 140여㎡로 시설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고, 하중도 600톤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운영에 무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현재 사다리 대신 승강기와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고, 상단부는 망원경을 갖춘 전망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탱크 외관은 캠프페이지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유지하되 경관 조명을 설치, 밤에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캠프페이지 물탱크는 전망이 탁월한 곳으로 여러 편의시설을 보강하면 도심 전망대로서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캠프페이지가 갖는 역사성을 살리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시설로 꾸미겠다”고 했다.

[관광과 250-3544]

춘천시, 내년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

현안 개발사업 마무리에 초점 2,600억원 신청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내년도 국비 편성작업은 8월 10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후 각 부처별 예산안이 확정돼 9월말 국회로 송부된다.

시는 현안 개발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2,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을 신청해 놓고,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부처를 방문, 마지막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광준 시장, 전주수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등 간부들도 재정비축진사업, 약사천 복원사업 등 주요현

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와 국회 방문활동에 적극적이다.

시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결과를 확보, 적극 대응사업 목록을 작성해 부서별로 대처하고 있다. 공지천, 약사천복원사업 예산은 1차 심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팔미천, 만천천, 신춘천 정비사업도 기획재정부 2차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결정된다.

재정비축진사업은 250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이광준 시장이 수시로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비 배분에 가장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과 250-3809]

상위법에 맞게 개정 추진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다. 춘천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당초 영업시간 제한에 있어 ‘오전0시~ 오전8시까지’로 못 박았던 것을 ‘오전0시~오전8시까지 범위

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현 조례의 의무조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제과 250-3900]

9월 21~22일 제7회 강원바이오엑스포 열린다

후평동 춘천바이오타운 일원, 과학퍼포먼스 공연, 경품추첨 등 다양

제7회 강원바이오엑스포가 오는 9월 21일(금), 22일(토) 후평동 춘천바이오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전시회와 함께 강원바이오 수출상담회(9.20 춘천라데나리조트)와 강원바이오취업박람회(9.21춘천바이오타운)도 함께 열리며 과학퍼포먼스 공연, 캐릭터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난해 보다 더 풍성한 엑스포가 기대된다. 지난 2011 강원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해외 9개 전략 수출지역에 763만 달러(86억원)의 제품 수출계약이 이뤄졌다.

춘천바이오산업 지속 성장 발전 중

바이오산업이란 현대 생물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유용물질을 사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춘천의 바이오산업은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괄목



지난해 강원바이오엑스포 모습

할 만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생물의약소재 및 바이오칩, 생물환경 및 미생물을 소재로 한 51개의 관련기업은 지난해 1,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고용 인원도 900여 명으로 앞으로 춘천의 바이오산업은 춘천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심축으로 커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환자(보호)감시장치(Patient Monitor)’ 만드는 전문 기업

7, 8조원 생체신호 의료기 시장 당당히 도전장

2010년 매출 18억, 2011년 27억 꾸준히 성장세
현재 50개국으로 수출, 매출의 90% 수출 통해 이뤄져



퇴계농공단지에 위치한 (주)보템(대표 강문석)은 생체신호 의료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명칭이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로 되어 있는 이 장비는 응급실이나 회복실, 수술실에서 환자 한 명당 한 대씩 비치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병원의 기본적인 장비다. 그만큼 시장규모가 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될 경우 5년 이내에 시장 규모가 7, 8조나 되기 때문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 세계시장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기업 중에서 (주)보템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남미, 중동,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 50개국 이상으로 수출

하고 있으며, 매출의 90%를 수출을 통해 얻고 있다. 2007년 창업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해 2010년엔 18억, 2011년에는 27억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4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다

전 세계적으로 2,000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중국의 저가 경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회사는 2007년에 회사를 설립할 생각을 했으며, 평균 7년이 걸려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이 분야에서 4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강문석 대표

“워낙 시장규모가 크니까 가격경쟁은 성능으로 극복해 보자는 생각으로 기술력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줘 디자인도 새롭게 시도한 결과 짧은 시간 동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말이 그렇지 사업 시작 후 1~2년 동안은 전 직원 8명이 매달 100만원도 급여로 못 가져 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줘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가족같은 회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회사’

회사 설립 후 우리사회의 불공평한 부의 분배의 현상을 보고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 해주는 가족같은 회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회사’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실천 중이다.

이미 2009년부터 주5일 근무를 조기 실행했고, 여름 겨울 휴가는 전 직원 모두가 똑같이 9일 동안 누린다. 결혼할 때는 회사에서 150만원의 결혼 지원금을 주고,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까지 알뜰히 챙겨준다. 앞으로는 퇴직이 없는 회사를 만들어 회사가 지속되는 한, 주 1회나 한 달에 두 세 번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생각이다.

4년 째 근무하고 있는 신언기 씨(자재구매)는 “가족적이고, 임직원들이 직원들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직원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했다.

현재 17명의 직원 중 13

명이 주주로 있는 (주)보템은 정말 누구나 일하고 싶게 만드는 회사인 듯 하다.

1억 이상 고액기부, 나눔을 실천하다

이 회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2011년부터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매출이 크고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환원이 기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강대표와 그의 15년 지기인 박순식 부대표의 기업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매월 30만원 씩을 기부하며 ‘착한 가게’의 일원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매달 100만원 씩 5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오면서 결국 지난 7월 1억원 이상 고액기부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도내 3호 기업이 됐다.

내년 1월, 거두농공단지로 새롭게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또 어떤 따뜻하고 즐거운 소식들을 전해줄 지 자못 기대가 크다.

문의 : 070-4035-2053



일본 수출하는 단호박 생산해요

웰빙 식품으로 각광, 소비량 늘어



반장 변귀재, 김덕성, 김용현, 김정선, 목양근, 박중묵, 박중양, 서상덕, 서상표, 서중성, 이광중, 유병복, 정동호, 정홍렬.

미니 단호박을 4~5년 재배하던 농민들이 뭉쳐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단호박 작목반을 꾸렸다.

올 2월에 만든 작목반은 지난 7월 19일 첫 수출로 20톤 상품을 실어 보냈고 지난 8월 16일에도 2차로 상품을 출하했다.

이 작목반은 몇 년간 두서너 농가가 작은 단호박을 생산, 판매해 왔으나 일본 내 큰 단호박 소비량과 사업성을 파악한 수출업체와 춘천시농업기술센터가 작목반을 주선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현재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은 2.5ha에서 단호박을 재배중이다. 올해는 단호박 한주에 5개 수확하던 것이 10개 생산될 정도로 작황이 좋아 반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반원들은 4월 버팀대 설치와 5월 모종을 내고 유인망을 설치한다. 6월 잡초 제거 등 관리에 들어가 60일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 사회에 알맞은 품목이다.

서상표 반원은 올해 버팀대설치가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농사일이 밀려 애로가 많았으며 내년에는 노하우를 익혀 더 편안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것

으로 내다봤다.

작목반원들은 수출장려금이 타 시군과 차이가 커 형평성에 맞게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농업기술센터는 단호박은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품목인데다 일본 내 소비량도 많아 신소득 대체작목으로 유망하다며 수출 작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호박은 일본에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이 전망되고 있다.



살아있음을 느껴라! 2012 춘천국제연극제

9월 1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13개 극단 참가



춘천국제연극제가 9월 1일부터 9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 봄내극장, 축제극장 몸짓, 춘천교육대학교, 춘천 MBC 야외를 무대로 펼쳐진다.

러시아, 프랑스, 대만, 일본의 극단을 포함 국내외 13개 극단과 40여개 아마추어 팀이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의 슬로건은 It's alive(잇츠 얼라이브).

연극을 사랑하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는 '독백 경연대회', '뮤지컬 갈라 콘테스트', '아웃도어 스테이지 콘테스트'가 마련된다.

공식초청작인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거울공주 평강이야기'가 9월 7, 8일 문예회관에서 선보인다.

●국내 참가작으로는 극단 앙상블의 '노인과 바다', 극단 애플씨어터의 '월미도 살인사건', 극단 소리의 '캐쉬', 댄스씨어터 창 의 'Brother(형)', 극단 하땅세의 아

동극 '붓바람', 춘천 극단 마실의 '그녀들만의 공소시효'가 무대에 올려진다.

●해외 참가작으로는 2012년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공식초청작인 다국적 극단의 '나비의 꿈', 대만의 'The Rain II', 일본의 'Shut up, Play', 러시아의 'The Echo of Native Land'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개막작은 '2011춘천국제연극제 희곡 공모 당선작인 김윤희의 '사월의 장례식'으로, 유연수, 윤승균의 공동연출로 춘천연극협회소속 배우들이 열연한다. 9월 1, 2일 오후 4시, 봄내극장.

●티켓가격은 5천원~2만5천원, 온라인 예매(인터넷파크, 사랑티켓)와 극장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

문의 241-4345 <http://cif.or.kr>.

이우진 명예시민기자

춘천MBC한국현대조각초대전



호반의 가을 '조각의 대향연'

9월 13일 개막, 10월 21일까지 호반광장에서 39일 동안 전시

야외 조각전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6년이라는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 MBC '제26회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이 오는 9월 13일 춘천MBC 호반광장에서 개막돼 10월 21일까지 39일 동안 전시된다.

춘천MBC(사장 김재형)가 1987년부터 매년 가을에 여는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올해 제26회를 맞아 <현대조각, 그 융합과 진화>라는 부제 속에 전뢰진 씨와 이운식 씨를 비롯해 한국조각계를 대표하는 원로중진 및 대학교수 등 22명의 운영위원회(위원장 권달술)가 선정한 66명의 작가작품이 출품전시된다.

춘천MBC 김재형 사장은 "자연과 문화예술이 늘 살아 숨 쉬는 춘천MBC는 이제 확실히 춘천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었다"며 "올 가을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갖고자 한다면 호반광장에서 명품 조각들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기"를 권했다.

초대작품들은 춘천MBC 홈페이지(www.chmbc.c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석사동 춘천교대와 앞 마을

국민동요의 고향, 춘천문학의 줄거리

‘과수원길’, ‘꽃밭에서’ 등 노래비 곳곳... 춘천문학이 자란 곳

정세문, 김공선 등 동요운동 중심인물 배출

그렇게 강렬한 보색의 대비를 본 적이 없다. 거리에 깔린 진노랑 은행잎과 그 위를 적시는 선혈.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에서다. 비지스의 ‘홀리데이’(holiday)는 그 선연함을 배가시켰다.

늦가을이면 신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스케치 사진이 있다. 은행잎 뒤덮인 가로수 회랑, 색색의 우산이 걷는다. 그 사진은 컬러여야 한다. 매년 그렇게 그 영화가 오버랩되고 비지스의 노래를 검색한다.

신문 속 은행잎 거리는 석사동 춘천교대 교정이다. 문득 어떤 냄새 혹은 이미지는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곤 한다. 그 은행나무 거리를 지나면 무채색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단 꼼꼼히 살펴야 보인다.

대학 본관 앞은 온갖 조경수로 다듬어져 있다. 본관건물은 원래 목조건물이었고 5.16백일장이 열리던 앞마당이 지금의 잔디밭이다. 잔디밭에 납죽이 엮드린 표석 하나. 동요 ‘그리운 언덕’ 조형물이다. ‘내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

겠지 나를 찾겠지’. 작사 강소천, 작곡 정세문.

작곡가로 소개된 정세문은 이 학교 1회 졸업생이다. 춘천교대의 전신은 춘천사범학교. 1939년에 문을 열었다. 동서의 영재들이 모인 첫 입학생 중에 그가 있었다. ‘그리운 언덕’보다는 ‘겨울나무’(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어린이행진곡’(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작곡자로 소개하면 더 친숙할 것이다. 춘천교대 졸업 후 여러 대학 교수와 교육부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동요보급 운동을 이끌었다. 2002년 모교 교정에 그를 기리는 노래조형물이 세워졌다.

시민들도 노래비 잘 몰라... 아동문학의 맥 이어

대학 본관 오른쪽을 돌아 언덕길을 오르면 만나는 또 하나의 노래비. 화강암에 새겨진 악보가 눈에 익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하얀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중략’. 국민동요 ‘과수원길’(작사 박화목, 작곡 김공선)이다.

이 노래를 작곡한 김공선 역시 이 학교 출신(4회)이다. 김공선은 북고성 장전 사람이다. 춘천사범 졸업

후 서울서 교사 생활을 하던 그는 같은 이북 출신인 아동문학가 박화목과 친구 사이로 지냈다. 박화목의 고향은 황해도 황주. 과수원이 많은 고장이다. 박화목은 동구 밖 산자락 마다 꽃을 피우던 고향의 봄을 시로 썼다. 1966년, 한 방송사에서 동요보급운동으로 김공선에게 ‘과수원길’ 작곡을 의뢰했다. 어린시절, 사과꽃이 핀 동산에서 놀던 추억은 노랫말의 감성 그대로였다. 국민가요는 그렇게 탄생했고, ‘과수원길’ 노래비는 그런 사연을 담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예술관. 왼편 잔디밭에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구나 불렀던 그 노래, ‘꽃밭에서’의 작사자를 기린 것이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화도 한창입니다~ 중략’. 어효선. 이 사람은 이 학교 출신이 아니다. 현대 노래비가 서 있는 건 왜일까.

어효선은 1980년대 춘천의료원장을 지낸 아동문학가 정원식의 소개로 춘천의 문인들과 교유를 했다. 그 인연으로 이 학교에 아동문학관련 희귀자료를 기증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난정문고’가 그것이다. 그 뜻을 기려 2002년 노래비가 세워졌다.

백양동산 ‘문학청년’ 춘천문단 일귀

되돌아 나오는 길, 은행나무 거리에 성하의 햇살이 튕긴다. 이파리마다 엽록소 알갱이들이 짹짹 들어찼다. 지금은 은행나무가 그들을 드리우지만, 그 시절에는 은행양나무 숲이 있었다. 청명한 날에도 바람을 타면 쇠악! 쇠악!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가난한 풍경을 씻어냈다.

사방은 산과 밭, 논이었고 마을 한가운데를 비포장길이 가로질렀다. 길 건너는 판자촌이 이마를 잇대고 있었다. 그 황량한 시대에도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을 걸던 문학이 자랐다.

동요 ‘달’(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의 노랫말을 쓴 최태호 교수, 도서관에 문예지를 정성껏 챙겨주던 박동련 교수, 시인 박동규 교수를 따라, 방황하는 ‘씹클레어’들이 모여 들었다. 학교 앞 ‘동춘옥’에선 까뮈, 카프카, 샤르트르, 헤르만헤세를 벗삼아 시대를 통음했다. 그 ‘문청(文靑) 시대는 한국문학사를 빛낸 여러 문인들을 배출했고, 지금의 춘천문학을 잇고 있다.

흙먼지가 날리고, 청춘의 고뇌를 토약질하던 그 회색 거리는 이제, 춘천에서 가장 번듯한 동네가 됐다. 그 시대 학적부에 이름을 올렸던 누군가는 소낙비 소리에 석사동을 떠올린다. 아! 백양동산... 석사동은 동요의 고향, 춘천문학의 줄거리이다.

글·사진 = 봄내편집실



정세문 노래비



김공선 노래비



어효선 노래비



청평사에서 고려 흔적을 찾다

김남덕 (본지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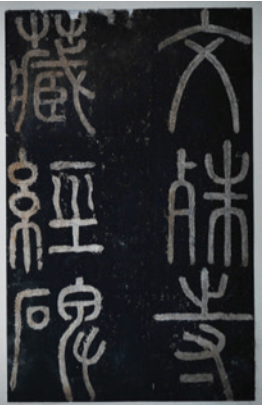
가족 수학여행지 선정된 청평사

문화재청이 지난 7월 19일 교과서 속의 문화재와 역사이야기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을 선정 발표했다. 춘천의 청평사는 그 32선에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문화유산 해설사 등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

청평사는 고려시대 때부터 명성이 자자한 사찰로 맑고 평온함이 느껴진다.

청평사에 남아 있는 고려 유적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이자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고려 문벌귀족인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은 3명의 고모가 왕비로 진출했고 삼촌 소현 스님은 왕사, 아버지 이의는 재상을 역임할 만큼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진락공 중수 문수원비 탁본

가졌던 집안이다. 23세 관직에 나아갔던 이자현은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과 본인과 더불어 집안의 천재로 두각을 나타냈던 사촌 이자겸의 난으로 권력에 대한 덧없음을 느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평사와 인연을 맺는다.

아버지가 경운산(지금의 오봉산)에 지어 놓은 보현원이란 암자를 문수원으로 고치고 배움을 입고 나물밥을 먹으며 참선에 몰두한다.

이자현은 식발을 하지 않고 거사로 살았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도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이자현이 승려가 되지 않은 이유는 대각국사, 혜소국사, 탄연 등에서 보듯이 주요 승직을 맡아 바쁜 생활에 묶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식발을 하지 않고 유발승에 가까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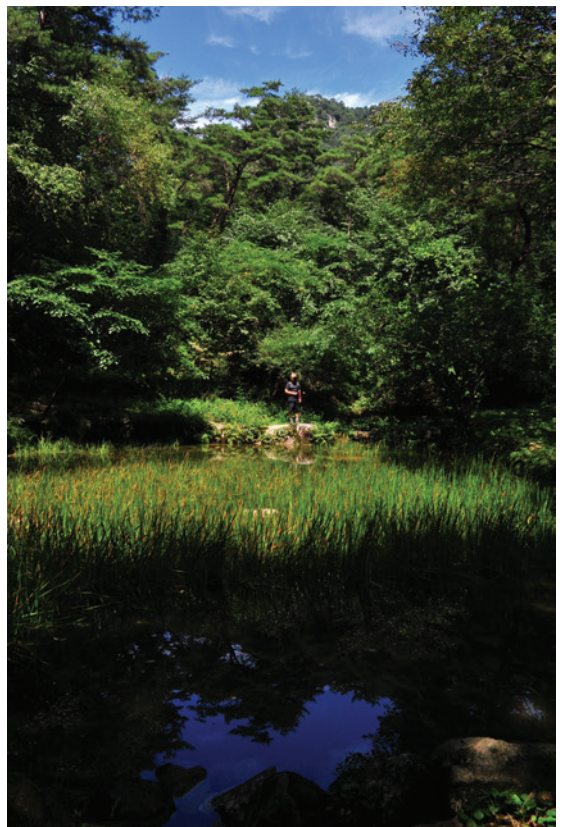
청평거사이지만 고승에 비할 만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어서 승려들을 제자로 두기도 했다.

이자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적은 ‘진락공 중수 문수원기’ 비이다. 6·25때 청평사가 전소되면서 완파되고 비의 조각은 1960년대 폐허에서 발굴돼 동국대에 소장돼 있다. 청평사 뜰엔 비의 받침만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KBS 진품명품 춘천 출장 감정평가에서 임진왜란 전에 탁본한 첩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비문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동생으로 국자감대사성을 지낸 김부철이 지었고 글씨는 당시 최고의 명필 탄연이 썼다.

특히 탄연의 행서와 해서체를 한비에 담아 금석학에서도 가치 있는 귀중한 유물로 보고 있다.



고려 영지



고려정원과 암각자

청평사의 고려 흔적은 고려정원과 청평선동, 청평식암 암각자와 바위에 새겨놓은 사각 모양의 차 유적지다.

요란한 매미울음을 뒤로하고 청평사로 걷다보면 구송폭포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산 8부 능선에 있는 청평식암 암각이 있는 적멸보궁까지가 고려정원이다.

1980년대 청평사 일대 조사발굴에 의하면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했으며 학계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지는 평범한 연못으로 보이지만 비밀이 숨어있다. 지금은 오봉산으로 불리지만 이자현은 이 산을 경운산으로 불렀다. 연못 안을 들여다보면 경운산 봉우리가 거꾸로 보인다. 그 봉우리에 이자현이 만든 견성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왕래하던 수도자들의 모습까지 연못에 비쳤다고 한다. 경운산도 그래서 이름 붙여진 듯 하다. 지금은 소나무가 옷자라 연못에 비친 풍광을 볼 수 없어 아쉽다.

연못은 앞에서 보면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앞쪽 길이보다 뒤쪽 길이가 짧다. 바로 원근법을 이용해 연못을 축성한 것이다. 이러한 원근법의 도입은 서양화의 등장(1200년)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다고 한다.

청평선동이란 바위에 새긴 글자는 청평사 왼쪽으로 오르다보면 환적당, 설화당 부도를 지나야 눈에 들어온다. 등산로에 있으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위쪽에 있어 알아채는 이가 드물다.

해서체로 쓰여진 글자는 이자현의 필적이라고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빼어난 암각자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유적이다. 청평식암은 이자현이 수도하던 곳이다. 계곡 깊숙한 곳에 있으며 지금은 적멸보궁이 들어서 있다.

식암 앞으로 흐르는 계곡을 따라가면 물이 흐르는 평평한 바위 위에 물이 고이도록 네모지게 인공으로 판 곳이 두 곳 있다. 문수원비문에 따르면 차를 달여 먹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차 유적지로 보여진다.

고려시대 차 유적지

고려시대 차 유적이 남아 있는 청평사 자체가 보물이다. 고려시대 차와 글자를 활용해 자원화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음과 동시에 춘천이란 도시의 품격이 높아질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자현의 흔적은 선동, 식암, 청평거사, 희이자(希夷子:이자현의 호)등으로 남아 있다. 이 명칭은 불교 보다는 도교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선가(仙家)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유불선 전체를 아우르는 청평거사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다. 거사가 남긴 채취를 찾아 과거 김시습도 세향원(細香院)이란 집을 짓고 살기도 했으며 정약용 등 수 많은 문객들이 찾은 정신적 이상향으로 청평사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었다.

지금 춘천의 낭만은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우리시대의 유산이다.

자료제공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상상마당 유치 및 어린이모험공원 조성

관광객 연 20만명 예상, 지역경제 연 60억원 이상 창출 기대

춘천시 당초 운영계획	KT&G 상상마당 운영계획
▼ 회관 리모델링 → 45억원 소요 - 건물내부 보수 및 어린이모험시설 설치	▼ 부지·건물매입 및 전면 리모델링 → 80억원 투입 - 건물내부 및 전기, 공조, 조명 등 리모델링 - 실내 인테리어, 가구제작 설치 등
▼ 연간운영비 → 10억원(추산)	▼ 연간운영비 → 60억원(추산)
▼ 운영계획 → 어린이 모험시설 - 로켓·우주체험, 소방·교통체험, 요리체험 - 인공암벽, 외출·다리 등 어드벤처체험	▼ 운영계획 → 어린이모험시설·문화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모험·체험시설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수용시설 포함)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성인, 시민 문화예술 다양한 프로그램 ※ 가족, 친구, 단체 등 1박2일 체험 운영

춘천시는 (주)KT&G가 삼천동 어린이회관 일대에 복합문화공간인 ‘상상마당’ 조성사업을 제의해 온데 따라 어린이회관에 상상마당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 어린이회관 어떻게 운영돼 왔나?

1980년 춘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 맞춰 강원도 어린이회관으로 문을 열었다.

1989년 춘천시로 이관 이후 지역 언론사, 사회단체 등이 위탁을 맡았으나 단기운영에 그치고 반납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공연장, 전시공간, 프로그램실, 야외무대를 갖추고 있으나 2년전부터는 시설노후 등의 문제와 운영적임자가 없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 춘천시의 당초 활성화 계획은?

2011년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나 신청기관이 없자 시비 45억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후 어린이 모험, 체험시설로 재개관할 계획이었다.

이런 와중에 KT&G가 기업이윤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상상마당’ 조성을 제의해 왔다. 춘천시는

개·보수 후 재개관과 매각에 따른 실효성 등을 면밀히 따져 매각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 ‘상상마당’은 무엇?

KT&G는 어린이회관과 인근 강원도체육회관을 매입, 리모델링 후 갤러리(기획 전시 등), 영상스튜디오, 영화관, 공연장(소극장) 등 문화체험공간을 만들고, 주니어상상마당, 문화탐방, 문학캠프 등 가족, 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1박 2일)과 음악회,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 축제를 할 계획이다.

춘천에는 5년간 33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내년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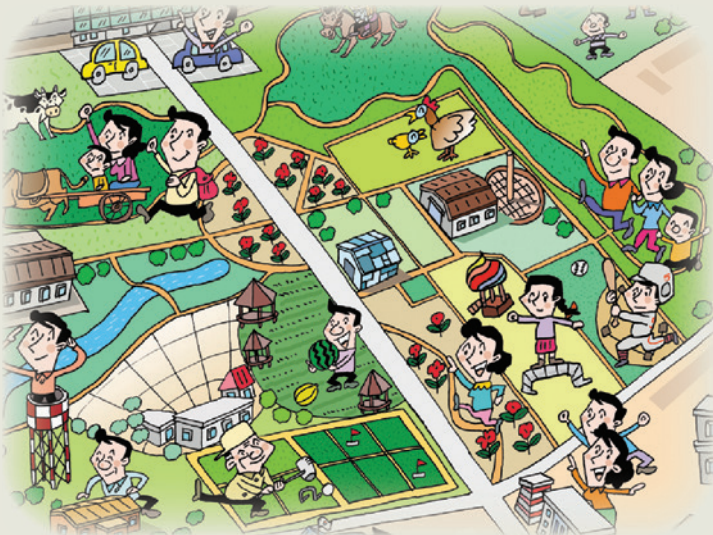
□ ‘상상마당’의 춘천시 효과는?

관광객 연 20만명 유입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연 60억원 이상 창출이 기대된다.

다녀간 이용객들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춘천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창의력·상상력 발달기여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다.

캠ป์페이지 부지에 어린이모험공원이 만들어진다



□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춘천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보
완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건물 외형 유지 ▶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강화 ▶
지역문화예술단체 참여 ▶ 춘천시민은 큰 부담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 임의 매각이나 타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매입
기관이 어린이회관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문화공간 외 다
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맺고 특약등기를 설정한다.

□ 어린이전용 대체시설은?

▶ 캠ป์페이지에 어린이 모험공원 조성 : 춘천시는 리
모델링 비용으로 세웠던 45억원과 매각대금을 합쳐 대체
어린이시설을 조성한다. 새로운 어린이시설은 캠ป์페이
지 격납고와 그 주변 6만㎡에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아
동·청소년 시설로서 기존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한다. 주변에는 어린이야구장, 다양한 모험·체험놀
이마당이 들어선다.

[청소년과 250-3116]

공모 · 신청

김유정 기억하기 제19회 전국문예작품 공모

9월 30일까지,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

강원일보사와 (사)김유정사업기념회는 유
능한 문학 지망생을 발굴하기 위해 문예작품
을 공모한다. 글은 김유정의 작품(소설·수
필)중에서 선택하며, 김유정 작품과 제목이
다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부문 : 시(시조 포함)-2편 이상, 산문-200자 원
고지 15~20매(중등부 7~10매) ▷접수기간 :
8.1~9.30(이메일 rhhkks@hanmail.net) *제목은 반
드시 '김유정 기억하기 문예작품'으로 표기, 작품은
첨부화일로 응모, 작품 앞에 부문, 대상, 작품제목, 주
소, 성명(실명), 전화번호 표기

저소득층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신청

춘천시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배정 물량은 73세대) 다가
구매입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
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
입해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입주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이하, 장애인이다. 임대보증금, 임
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다. 임
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최
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
센터로 하면 된다. ▶1순위 8월 27~31일
▶2순위 9월3~7일이다.

문의 : 시청 복지과 250-4251,
NH강원지역본부 258-4125

춘천시 태어난 '구름빵' 캐릭터 태국 시장 진출

태국 완구 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인 '팍스토이'와 라이선싱 계약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박홍수)은 국내 인기 TV애니메이션 '구름빵'에 대하여 태국 완구 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인 '팍스토이(대표 박영태)'와 캐릭터 특허 사용(라이선싱)계약을 맺었다.

팍스토이 측은 앞으로 태국 현지에서 구름빵을 활용한 완구, 생활용품, 도서 등 다양한 부가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박홍수 원장은 "태국지역 구름빵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KBS 등이 공동 제작한 '구름빵'은 현재 중국 CCTV를 포함해 이탈리아 디즈



니 채널(Disney Channel), 이란 IRIB, 노르웨이 TV2, 아랍에미리트의 E-junior 등과 배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감자옥수수 익히기 이색체험

남면 한덕리 강언덕 여름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여



지난 7월 말, 강 언덕 마을로 불리는 춘천시 남면 한덕리 흥천 강변에서 '제3회 강 언덕 여름 축제'가 열려 감자 옥수수 익히기 체험, 떡메치기, 메기 맨손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있었다.

감자 옥수수 익히기 체험은 강변에 널려있는 큰 돌과 자갈을 모아 두꺼비 집을 만들고, 장작불을 지펴 뜨

겁게 달궈진 두꺼비 집 위에 찜통 대용으로 쭉대를 둥글게 말아 엮는다.

그 안에 감자와 옥수수를 넣은 뒤 덮개를 한 다음 강모래로 둥글게 쌓아 올린 후 모래에 구멍을 내고 물을 부어 밀봉해 감자와 옥수수를 익히는 체험이다.

고온으로 달구어진 자갈과 모래의 열기로 감자, 옥수수가 쭉 향이 가득 밴 맛있는 먹을거리로 탄생되는데 맛을 본 어린이들이 내지르는 탄성 소리에 어른들의 입도 덩달아 컷가에 걸리는 이색 체험이었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천년의 우리 소리를 배운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1년까지 무료 레슨,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 열어



매주 화요일 저녁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모여 연습하는 회원들

춘천대금소리사랑회(총무 김정수)는 9년 전부터 시작돼 매주 화요일 저녁 근화동 근로복지공단 노동지회 사무실에 모여 도립국악관현악단원인 김대현 선생을 모시고 대금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저변확대를 위해 장소, 레슨비 부담없이 대금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신입회원은 1년까지는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회비는 1만원이며, 처음 시작할 때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3만원 정도의 연습용 대금을 사용하면 된다.

신입회원인 백영숙 씨는 “몇년 전 경주 안압지에서 대금과 기타 연주하는 것을 보았는데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에 마음 속 회한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뒤부터 대금 배울 곳을 찾다가 가입하게 됐다”고 했다.

여름이면 실력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캠프를 열고, 12월이면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해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다.

“대금을 불면 건강도 좋아져요”

5년 째 대금을 불고 있는 박정미 회원은 “대금은 복식호흡을 해야 진정한 소리가 나오기에 복식호흡을 하다보면 몸 속의 노폐물이 빠져 나오고 뇌에서 에너지가 나와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고 했다.

이운중 회원은 “서양 관악기를 오랫동안 불어왔지만, 천년의 소리인 대금을, 배우기 쉽지 않은 악기를 불다보니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악기라 외화반출도 안 돼서 좋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김정수 총무는 “국악도 자꾸 접해봐야지 배우고 싶고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사람들이 우리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마음 속의 바람을 전했다.

문의 : 010-6298-9850



춘천의 영웅들 국민에게 감동을 선물하다

- 진종오(KT) 사격 권총 10m, 50m 금메달
- 정길옥(강원도청) 펜싱 플뢰레 단체전 동메달
- 김현우(삼성생명) 레슬링 금메달

사진 = 연합뉴스



금빛 탄환 진종오 (강원사대부고 졸업)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2012 런던 올림픽이 8월 12일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민들은 열대야 속에서도 춘천의 영웅들이 있어 폭염도 이겨낼 수 있었다. 메달의 주인공인 진종오, 정길옥, 김현우 등 춘천 연고 선수들이 당당하게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순간 시민들은 가슴 뭉클한 무한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간판 사격선수인 진종오(KT)선수는 남자 10m 공기권총과 50m권총 경기 우승으로 금메달을 선사했다. 진 선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춘천의 사수 진종오는 결선에서 100.2점을 썼지만 예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덕분에 여유 있게 688.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진 선수는 8월5일 열린 남자 50m권총 경기에서 드라마를 연출했다. 예선성적 5위로 결선에 오른 뒤 한발 한발 앞선 선수들을 따라 잡으며 1.6점차로 1위를 차지해 춘천인의 목심을 세계에 펼쳐 보였다.

1979년 춘천시 남산면에서 진재호 씨와 박숙자 씨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춘천교대부설초교를 졸업하고 남춘천중에 입학해 3학년때부터 총과 인연을 맺었다. 본격적으로 총을 잡은 것은 강원사대부고 2년부터 1996년 전국체전에서 단체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존폐위기에 놓인 사격부를 살려낸다. 경남대에 진학한 그는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해 오른쪽 어깨에 철심을 심는 대수술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부상을 극복한 그는 특급 총잡이 외에 이 수술로 공항 검색대 통과 시 검색에 걸려 '터미네이터'라는 별명도 얻었다. 2006년 결혼한 아내 권미라 씨와의 사이에서 올해 11월이면 결혼 6년 만에 2세를 맞는 겹경사를 맞고 있다.



승리의 여검객 정길옥 (춘천여고 졸업)



정길옥(강원도청) 선수는 여자 펜싱사상 단체전 첫 동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1초 오심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상황에서 메달을 획득해 더욱 진한 감격을 주었다.

정길옥을 비롯한 남현희(성남시청), 전희숙(서울시청), 오하나(성남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2일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플뢰레 단체전 3~4위전에서 프랑스를 45대 32로 꺾고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대표팀은 2세트까지 9대10으로 근소하게 뒤졌으나 3, 4세트에 나선 정길옥과 전희숙이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채 각각 5점과 6점을 찰러 20대 10으로 승기를 잡았다.



불굴의 투지 김현우 (강원고 졸업)



한국레슬링의 희망봉 김현우(삼성생명) 선수는 한쪽 눈으로 레슬링 역사상 8년 만에 금메달을 안겼다. 김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전에서 타마스 로린츠(헝가리)를 맞아 1세트를 따낸 뒤 2세트에서 상대를 반씩 들어 올려 주특기인 측면들어던지기를 시도해 반칙을 얻어냈다.

보기 안스러울 정도로 통통 부은 눈으로 남은 시간을 잘 버텨 반칙으로 얻은 2점을 끝까지 지킨 김현우는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매트 중앙에 태극기를 펼쳐놓고 큰절을 올려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다.

춘천출신으로 지난 1984년 LA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종규선수에 이어 28년 만에 메달 획득에 성공한 것이다. 중학교 1년에 레슬링에 입문한 김 선수는 강원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레슬링 전사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가파른 기량을 선보인 그는 3년간 전국체전을 연패하는 등 전국 최강자로 우뚝섰다. 고3때 세계레슬링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경남대에 진학한 김 선수는 또다시 4년간 전국체전을 제패하며 꿈을 올림픽으로 돌린다. 한때 체중 감량 실패로 좌절하기도 했지만 독심으로 위기를 탈출해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3위, 그해 12월 프레스올림픽 1위를 차지해 세계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김 선수는 경기 전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린 선수가 있으면 금메달을 양보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성실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각인시켰다.

이후 9세트에서 1분50초를 남기고 남현희가 정확한 찌르기를 성공해 승리를 마무리 했으며 한국은 펜싱 역사상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단체전 시상대에 우뚝섰다.

남춘천초교 6학년때 학년별 육상대회에 나온 정길옥은 김두경(동산중 교장교사)의 권유로 펜싱과 인연을 맺게 됐다.

하체가 길고 왼손잡이인 정 선수는 칼잡이로 성공할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정 선수는 춘천여중에서 본격적으로 펜싱을 시작한다. 2남2녀 중 장녀인 정길옥은 한번 한다면 하는 끈질긴 성격의 소유자로 우직한 성격 덕분에 중학교시절 기본기를 하나 하나 쌓아가기 시작한다.

춘천여고로 진학하면서 펜싱선수로 빛을 발하기 시작해 한국체대 졸업 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 여자 펜싱 플뢰레 국가대표 만연니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강원도청에 입단한 전 선수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차지했고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길옥은 춘천여고 펜싱부 사상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참 기뻐요”

춘천시립도서관과 제주시탐라도서관 이용자 초등 5학년 학생 대상



자매결연을 맺은 춘천시립도서관과 제주시탐라도서관은 올해로 9회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홈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8월 6일 제주도에서 14명의 학생들이 먼저 춘천을 찾았다. 4일 뒤 제주도로 함께 떠날 춘천의 14명 학생들 집에서 여장을 풀고 이튿날은 의병마을과 송암빙상장을 방문했다. 8월 8일 홈스테이 가정별로 체험이 진행됐고, 9일엔 막국수 박물관 견학 및 체험을 한 후 함께 제주도로 출발했다. 춘천에서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홈스테이와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문화체험이 진행됐다.

제주도에서 온 김현오 학생(노영초)은 “춘천의 닭갈비가 정말 맛있다”며 “제주도에 없는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져 상처가 나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다”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양승원 학생(남춘천초)은 “솔직히 제주도에서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별로 재밌을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같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제주도를 처음 가는데 가면 아쿠아리움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문의 245-5109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밥상

전인자 씨의 웃음이 번지는 작은 음식점

중앙로에 있는 ‘미미스넥’은 앉을 자리라곤 식탁 3개와 엉덩이보다 작은 동그란 의자 10개뿐이지만 단돈 2,000원에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가까이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농산물 직거래 목요장터도 근처에 있기에 점심시간이면 “번개 불에 콩 볶는다”는 말처럼 식사하는 사람이나 밥상을 차리는 주인이나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장, 배고픈 이에게는 더 주고, 돈 없으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외상이다. 주인 전인자 씨는 식사비를 갚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단골 고객이 농사짓는 시골노인들이거나 상인들이어서 일반인들은 식사시간을 피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 내부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 씨는 “더 넓으면 혼자서 할 수 없고 사람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대호가 좋다”고 했다.

시골 어른들이 농산물을 그냥 가져다 주거나 장터에서 팔고 남은 식재료도 대가없이 주고 가는 이가 많아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골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게 웃는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아름다운 춘천이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유네스코와 일본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의 43년 된 민간 교류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의 지도자와 학생들이 춘천을 찾았다. 이에 앞서 춘천의 청소년들이 7월 25일부터 6박 7일간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이 행사는 한국 유네스코 강원도협회(회장 조선모)와 일본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 간에 43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자라는 학생들에게 상대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건전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온 김건우 학생(후평중 3년)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가서 생활해보니 오해란 생각이 들고, 일본이 예절 바르고 깨끗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편 함께 일본에 다녀온 학생들은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일본에 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일본의 히사미츠 사요 양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자연이 많아 일본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했고, 한국 방문이 두 번 째인 마루키 나나코 양은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을 알게 돼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국어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두 학생은 안보리의 춘천도예(대표 송광호)에서 목걸이를 예쁘게 잘 만들어 송대표로부터 호랑이 조각을 선물받기도 했다.

문의: 256-5885

하이록 한우 체험농장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을 보니 마음이 편해요”

곧 춘천의 새 명소가 될 듯한 예감이 드는 곳

지난 7월 25일 사북면 고탄리에 하이록 한우 체험농장(대표 최영철)이 문을 열었다. 7만평의 초지에 한우를 방목, 사육하는 하이록 한우 체험농장은 강원청정 하이록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강원도와 5개시군(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한우 뿐 아니라 양, 당나귀, 토끼, 닭, 햄스터 등 여러 동물들이 있어,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도 줄 수 있고, 타볼 수도 있어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아주 그만이다.

사우동에 사는 주부 김세영 씨는 “동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주변의 경관도 너무 좋아 자주 오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11일 저녁, 이곳에서는 봉사단체인 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 청소년들의 소박한 공연에 이어 나

눔이봉사회에서 준비한 가족영화 ‘아이스케키’가 상영되었다. 야생화 꽃밭과 소나무 산책로 등이 있어 한 번 가면 오래 머물고 싶은 하이록 한우 체험농장이 춘천의 새 명소가 될 날이 멀지 않을 듯하다.

문의 : 244-2122



“레일바이크 운행 코스 너무 환상적”

8월 10일부터 레일바이크 운행 ... 춘천 또 하나의 명물



레일 바이크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가평대교 위를 달리는 시승객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 경강역에서 가평역 방향으로 달리는 레일 바이크 시승식 이야기다. 8월 10일 오픈을 앞두고 (주)강촌 레일파크(대표 최광규)는 춘천시민 80여 명을 초청하여 시승 운행을 했다.

(주)강촌 레일파크는 경강역에서 가평역 구간과 김유정역에서 강촌역 구간 폐 철길을 이용한 레일 바이크 사업을 위해 280억여 원을 투자해 레일 바이크 250대를 비롯한 부대시설 확장 및 개보수를 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8월 10일 영업을 개시했다.

김중영 운영본부장은 “2인승과 4인승 두 가지로 경강역에 110대, 강촌역 70대, 김유정역 70대 등 현재 250대가 운행 중에 있고, 9월경에 추가로 50대를 더 들여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승식에 참여했던 서병우 씨는 “강을 접하고 있는 레일 바이크 운행 코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환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의 257-0000 www.railpark.co.kr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인생도 천천히 쉬어가는 느낌의 미학 즐기는 카페

카페 ‘라르고’의 선우봉석 · 정운재 부부



봉의산 자락에서 바라보이는 춘천 시내에 마냥 한가롭기만 하다. 실상 저 안의 삶은 인간의 오욕칠정과 밥벌이의 고단함으로 복잡하고 성가시게 얽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을 한 발 빗겨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봉의산 아래, 강원도청에서 한림대 후문으로 가는 길목에 카페 ‘라르고’가 위치해 있다. 56세의, 중년이라고 하기엔 나이든, 노년이라고 하기엔

젊은, 부부가 꽃과 커피, 음악을 곁에 두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이다.

“쉬어가자 천천히, 인생도 좀 차분히, 주변도 좀 살펴보자는 뜻에서 카페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탈리아어로 ‘라르고’는 ‘폭 넓게, 느릿하게’를 뜻한다. 커피를 좋아하다보니 커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한 열정이 업으로 이어졌다는 로스터리인 남편 선우봉석(56)씨와 대표인 아내 정운재(56)씨. 10여년 전만해도 커피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고 정보를 얻기도 힘들어 직접 미국과 일본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부를 해왔다는 그들이다. 커피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고 말하는 부부는 이곳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동네 커피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문득 고개를 들어 도심 풍경을 바라보니 그 마음 언뜻 느껴진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

이우진 명예시민기자

“50년간 천직으로 여기며 즐겁게 일하죠”

8순 가까운 나이에도 이발관 운영하는 이영목(79) 할아버지

“평생 일할 수 있다는게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윗샘밭 일명 콧구멍다리 가기 전 우측 도로 변에서 50년째 문화이발관을 운영하는 이영목(79) 할아버지.

네다섯평 남짓되는 작은 이발소 안에는 옛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발용품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개업당시 선물로 받았다는 “하면된다”라는 편액과 오래된 세면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정겹게 느껴진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동안의 얼굴을 가진 이 할아버지는 서면 덕두원이 고향이다.

집안이 서면일대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유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자 6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춘천역에서 화통기차를 타고 이북 원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해방이 되자 이 할아버지 가족은 11년 만에 다시 원산에서 철원까지 야반도주한 후 다시 서면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있는 이발소에 갔다가 주인



아저씨로부터 이발기술을 배워보라는 권유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이 할아버지는 40대 늦은 나이에 이발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춘천의 여러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현재의 위치에서 마지막 등지를 틀었다고.

지금도 춘천은 물론 화천, 양구에서까지 단골손님이 찾아온다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자신을 믿고 보고싶어하는 손님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황순옥 명예시민기자

전설이 깃든 고장

‘수리부엉이’ 서식지였던 남면 한덕리

남면 한덕리는 4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동리를 휘감아도는 홍천강과 주변의 풍광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일명 강 언덕 마을로 약 30년 전, 마을엔 수령 100여 년 된 밤나무 숲이 있었는데 200여 마리의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부엉이가 고양이를 닮은 매와 비슷하다 해서 ‘묘두옹’이라 불렀고, 70세 이상 장수를 상징한다 하여 마을의 새로 기리고 있었다.

먼 옛날, 늦은 일을 마치고 나룻배로 홍천강을 건너오는 마을사람들을 향하여 부엉이가 ‘잘 다녀오셨느냐’ 며 매번 울음으로 반겨주곤 했고,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동네에 길흉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 수리부엉이를 길조라 여긴 마을주민들은 정성스레 돌을 하나하나 쌓아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부엉이 동상을 올렸다. 돌은 이 마을의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 정겨운 풍경을 뜻하며 옛 모습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시정 질문요지



윤채옥 의원

□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중 향토사 박물관이나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지역박물관이 춘천시에만 없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춘천시 도시개발 장기계획수립 시 녹지축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개발과 택지개발 시 녹지축 복원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와 도시팽창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봉의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능선 복원을 통한 도시 숲확대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2011년 매립용 봉투판매현황 중 판매량이 월별 100배 이상의 편차 이유 및 불법투기의 근본적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의원

□ 체육진흥재단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익추구보다는 사용의 편의를 높이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분쟁에 대하여 27만 춘천시민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 및 2012연말이면 준공될 약사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약사천 용수를 유상공급하게 되면 연간 수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에 준여고의 만천리 이전 및 아이파크아파트 신축 입주와 관련하여 만천리, 장학리로 연결되는 계획도로 및 도심내부순환도로 교통망구축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답변요지

윤채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박물관 건립 관련 (춘천시장)

향토박물관 건립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그 박물관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필요한 자료 수집만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구상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되면 공원구역 내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시의 문화적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박물관이 하나쯤 더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복지국장)

불법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좀 더 강화된 상시단속반의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대를 운영, 불법투기 예상지역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판매 관련 (복지국장)

종량제 봉투는 조달청 등록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공급 받고 있으며 봉투공급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춘천농협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029개소의 봉투판매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차이는 전체 쓰레기발생량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의한 반입량이 5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반입량이 48%를 차지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과 봉투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축 복원문제 계획 관련 (건설국장)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약사천 도심하천 복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부지 내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철도하부공간의

공원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축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체육진흥재단 관련 (춘천시장)

전문적인 체육시설 운영도 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체육회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재단 위탁금으로 전환되어서 재단의 예산규모가 외형상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이지만 재단 자체의 경영상적 운영경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용수 공급 관련 (복지국장)

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 규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하천생태계보호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대용수를 사용할 시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사천·공지천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댐용수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준여고 이전 교통대책 관련 (건설국장)

준여고 이전 전에 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학교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내버스와 통학버스 노선도 조정하여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 물값 분쟁 관련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와 다른 지자체와의 판례를 감안할 때 우리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시에서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시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환주의원



남면·남산면·신동면·강남동 지역 구 황환주 의원입니다. 저는 춘천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춘천시의 청사건립 추진을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관동은 1957년 건축되어 세차례 증축을 하였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27만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으며 수시로 개보수하는 건물유지관리 비용도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천시 공공·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5월 31일 현재 청사건립기금 505억1,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2010년도에도 청사건립기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약사천 도심복원공사에 200억 남부로조성공사에 177억 원을 용자 사용했습니다. 당초 용자 기간도 2년거치 3년상환에서 4년거치 3년상환으로 이자율도 3.87%에서 5.35%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설명과는 달리 기금사용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청사문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재추진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근화동·신사우동·소양동·약사명동·조운동 지역 구 민성숙 의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희망지수가 날로 높아가는 아름다운 춘천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춘천시민과 집행부에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에 역사적인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겨운 우리들의 골목길을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아래 모두 없애버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으로 불리는 치열한 3.1전쟁과 6.25전쟁에서 귀한 목숨을 바친신 무공수훈의 영웅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올해로 개교 88주년을 맞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이나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춘천중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질퍽해진 운동장 때문에 950여명의 학생들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춘천시민들의 신발에 흙이 잔뜩 묻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춘천중학교의 운동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약사동, 근화동 주민들의 운동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야구동아리 회원들께서도 그곳을 사용하는 등 쓰임새가 많은 소중한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춘천시가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예산을 하루속히 집행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규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어린이 회관의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의를 피력하였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춘천시장은 이에 아랑곳 않고 지난 7월 16일 KT&G와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매각 추진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춘천시의 어린이회관 매각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30여년간 어린이회관을 방치만 하다가 지난 연말 의회에 리모델링 관련 예산 승인을 요청하며, 이번기회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다양한 춘천시민의 문화적 욕구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27만 춘천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춘천시가 예산성립 후 몇 달도 안되어 입장을 바꾸는 조삼모개식의 일관성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찌 이해 해야 합니까? 춘천시민들 본인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가슴속에 영원한 감성공간으로 남아 있는 어린이 회관은 존재 자체가 춘천시의 자랑이고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자산이 시장의 의지대로 사기업에 매각된다면 현재의 우리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법으로 마지못해 하는 담배인삼공사의 사회환원 사업이 매력적이라면 춘천의 다른 장소를 물색해 주든지, 일정기간 무상사용 허가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 했다는 것 자체가 춘천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고 춘천의 품격을 사랑해 왔던 모든 분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시장과 시민, 시민들과 시민간의 수많은 갈등으로 춘천시민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춘천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봄내골 소식

● 춘천시 8월7일 올해 상반기 시민제안 수상자 유창운 씨와 윤성혜 씨에게 시상하고 격려했다. 올해 상반기 제안공모 결과 총 98건이 접수된 가운데 11건을 심사하여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구축'과 '노인일자리 늘이터안전지킴이 창출' 2건을 노력상으로 선정하였다.



● 춘천시체육회·생활체육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도지부는 8월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나눔의 문화 전파에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 남면의용소방대(대장 김정환)는 8월14일 남면 한덕리에 가정용 소화기 40대를 전달했다.
- 신창건축(대표=이호범)은 8월6일 떡 16kg을 근화동 관내 경로당 4곳에 전달했다.
- 남산면 서천리 한화호텔리조트는 8월7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150여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
- 춘천시여성회관 소속 봉사단체 '희망나누미'(단장 최경숙)는 8월10일 애민보육원생

15명을 초청하여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 동춘천농협 동산지점은 8월1일 오후3시 봉명리에서 준공식을 열었다.(사진) 이날 11시에는 호반지점 개소식이 거두리에서 개최되었다.



- 석사교회(목사 손학균)는 7월27일 백미 20kg 48포대를 석사동주민센터에 기탁했으며, 동에서는 24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 사북면 오탄1리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7월28일 농촌건강장수마을 도농교류 및 마을잔치를 열고 사물놀이공연 등 행사를 개최했다.



● 동내면 사암2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8월9일 마을회관에서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발전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퇴계동 통장협의회(회장 김홍복) 회원 20여명은 8월1일 남춘천역에서 춘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춘천월드레저대회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롯데주류 처음처럼(지점장 장원혁)은 8월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달라며 석사동 자원봉사단(단장 왕선자)에 백미10kg 18포대(7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원장 양봉남)은 8월6일 마을주민을 초청하여 장애인직업재활공장을 안내하고 삼계탕과 복사용지, 화장지를 선물했다.



- 신북읍 발산1리 성수창(50) 씨는 8월7일 경로당에서 마을노인 50명에 닭 10마리와 음식(4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 후평1동 이성재 자치위원은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여 지난 4월부터 1주일에 2번씩 후평1동 2동지역 일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새성광미용실(원장 홍성희)은 8월17일 저소득층 노인인 장애인에 대해 미용봉사 활동을 펼쳤다.
- 동춘천로타리클럽(회장 안병철)은 8월 16일 석사동 소재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산생아용 분유 100통(총 2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알림 마당

강습 · 교육

고동주민자치센터

- 프로그램 : 오카리나(월/10시/20명) POP에 뽀글씨(목/10시/20명) 기초 사주이야기(금/10시/40명) 초등생 바둑입문(토/10시/20명)
- 접수기간 : 8.20~8.31(선착순 방문접수)
- 수강기간 : 9.1~12.29
- 수강료 : 4만원(4개월분 선납)
- 기타 : ▷개인도구,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담 ▷10명 미만 폐강될 수 있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50%감면(신분증)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100%감면(관련증명서)
- 문의 : ☎250-3612

소양동 주민자치센터

- 프로그램 : 요가교실(수,금10시/40명) 벨리댄스(월10시/목13시/30명) 리듬라인댄스(화,금14시/25명) 우리(장수)춤체조(월,수14시/20명) 민요교실(월,수10시/25명) 노래교실(월,수13시/40명) 무료게이트볼(초급)(월,금15시/10명)
- 접수기간 : 9.24~9.28(근무시간 내)
- 수강기간 : 10.2~12.31
- 수강료(3개월분 선납) : 3만원(요가교실, 우리장수춤체조) 4만5천원(벨리댄스, 리듬라인댄스, 민요교실, 노래교실) □ 만65세 이상은 50% 감면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 기타 : 1)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2/3 미만일 때는 폐강될 수 있음. 2)모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 : 250-3611

효자2동, 주말청소년 무료요가교실

- 접수기간 : 8.20~8.31
- 수강기간 : 9월~11월(매주 토/10시)
- 신청대상 : 초등4~6년 · 중고생(선착순)
- 기타 : 접수인원이 최소인원에 미달되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수강신청 후 미출석 시 수강취소될 수 있음.
- 문의 : 250-3620, 254-6111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 프로그램 : 학생드림, 성인드림, 해금, 통기타

- 상세내용 : 홈페이지(www.cc1318.or.kr)
- 문의 : 251-1318

방송통신대 무료강좌

- 대상 : 지역주민 및 방송대상
- 강좌 : 부동산경매, 기초영어, 중국어교실
- 접수 : 부동산경매(70명 선착순), 영어 · 중국어교실(9.3. 방문접수)
- 문의 : ☎240-6616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시민강좌

- 일시 : 8.27(월)9.24(월)/오후7시
- 장소 : 춘천문화원
- 주제 : ▷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본 춘천의 선사문화 ▷발굴을 통해 본 춘천의 문화 유물
- 강사 : ▷김재홍(전 국립춘천박물관장)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장)
- 문의 : 251-9958

여성회관 열린특강

- 일시 : 9.19(수) 10시(여성회관 강당)
- 강사 :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 참석대상 : 시민 누구나

9월 인문학 시민강좌

- 기간 : 9.1~9.30(매주 목/19시)
- 주제 : 고전문학과 인간의 길
- 강사 : 박순임(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문의 : 춘천시립도서관(☎245-5109)

강원여성교육연구소 프로그램

- 과목 : 과학실험팝업북아트, 냅킨공예, 북아트, 팝업북아트, 한지공예,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매직잉글리쉬, 초등NIE교실, 중등통합논술
- 대상 : 성인 및 학생
- 수강료 : 6만원(3개월분*재료비별도)
- 운영기간 : 9.3~11.24
- 문의 : 255-2058

모집 · 신청

12주 단기특강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8.27~9.5(선착순 방문접수)
- 교육기간 : 9.10~11.30
- 교육과목 : ▶산수화(남녀20명/금13시) ▶천연비누와 섬유아트(남녀20명/월목10시) ▶건강자가요법(남성20명/월목17시) ▶창의력쑥쑥 키즈쿡(7~10세15명/토10시)
- 수강료 : 3만원(접수 시 현금선납)
- 기타 : 1인 1과목만 신청 가능. 개강 후 수강취소 시

-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음, 청강 및 타인명의 수강금지. 중도에 과목 변경할 수 없음,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50%미만시 폐강됨(수강료 100% 환불, 미달과목에 한해 변경 가능)
- 문의 : 춘천시여성회관 (245-5190~1)

여성회관 여성산악회원 모집

- 산행주기 : 월 2회
- 모집 : 수시(*입회비 1만원)
- 문의 : 250-3539

(주)한국고용정보

폴타임 · 시간제 정규직 모집

- 모집분야 : 해피콜TM, DCDS팀
- 응시자격 : 학력,성별,경력무관/주부가능 /PC사용 가능자
- 근무장소 : 춘천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근화동)
- 문의 : 033-815-8010, 8011

어린이리더십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8.27~9.6
- 진행기간 : 9.7~11.2(매주 금/16시)
- 대상 : 초등4~6학년 12명 (회비10만원,저소득층2만원)
- 문의 :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42-0051)

도래관계기술향상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8.27~9.14
- 진행기간 : 9.17~11.12(매주 월/16시)
- 대상 : 초등5학년 10명(회비8만원)
- 문의 :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42-0051)

ADHD 부모교육 참여자 모집

- 일시 : 9.5~9.26(11시/주1회/총4회 진행)
- 주제 : ADHD와 유사질환들
- 강사 : 정영석 원장(분내병원)
- 문의 :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244-1391)

위스타트춘천마을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내용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멘토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장난감도서관 운영보조 및 일반사무) □ 자격 : 연령 및 성별 무관
- 문의 : 263-2850~1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모집강좌 : 바리스타2급, 심리상담사, 방

과후이동지도사, 국외여행인솔자, 미국인영 어회화, 골프,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취미요리 교실, 타로카드교실, 플룻교실, 어린이농구, 키즈발레, 청소년토익, 청소년연극연기체험, 색소폰 등

□ 접수기간 : 9.5(수)까지

□ 문의 : ☎240-9490~3

http://lifepartner.hsc.ac.kr

고객상담원 무료교육훈련생 모집

□ 대상 : 도내 취업희망자(남녀24명)

□ 모집기간 : 9.29까지 계속

□ 교육기간 : 1회/9.3~9.21, 2회/10.3~10.26

□ 교육내용 : IT(한글, 엑셀)기초, 고객상담기법, 서비스이론 등

□ 문의 : 춘천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43-6474)

동내(토요)도서관학교 수강생 모집

□ 기간 : 9월~12월(초등생 대상)

□ 내용 : 문학, 계절, 친환경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문의 : 동내도서관(☎245-5128)

동내도서관 부모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기간 : 9월~12월(매주 수 10시)

□ 내용 : 부모리더십 중심강의 및 뇌훈련법

□ 강사 : 박민수(뇌경영연구소장, 전 춘천교대총장)

□ 문의 : 동내도서관(☎245-5128)

수화통역사 수강생 모집

□ 대상 :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시민

□ 접수기간 : 9.3까지(선착순 27개반 각30명)

□ 교육기간 : 9.4~12.4(주2회/교육비2만6천원)

□ 교육장소 : 도농아인협회 시지부 (구.근화동사무소)

□ 문의 : 252-9056, 244-1474

가족관계개선 '힐링가족캠프' 모집

□ 일시 : 9.15(토, 11시) 9.16(일, 14시)

□ 장소 : 강촌 서울시립대학교 청소년수련원

□ 인원 : 중1~고1 청소년과 학부모 20가족(40명)

□ 문의 :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6-2000)

가드닝(정원)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9.4~11.6(주 1회 14~17시)

□ 교육인원 : 30명(선착순)

□ 상세문의 : 제이드가든(263-9550)

결혼이민자 어머니나 나들이 신청

□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12가족 48명

□ 지원내용 : 비행기 왕복 항공권 (여권·비자 수수료 포함)

□ 신청자격 : ①춘천거주 5년 이상 ②3년 이내 고향 미(未)방문 ③1자녀 이상 등 3개항 모두 충족

□ 신청기한 : 10월 12일까지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3341)

춘천문학여행 신청

□ 1기 : 9.5(수)/09:30/옛길따라 가는 사북면 청람길/참가자격은 2010~2011년 춘천문학여행 참가자/선착순 30명/봄내유람-다음 카페에 신청

□ 2기 : 9.19(수)/09:30/‘은마...’를 만나러 가는 길(서면)/참가자격은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9.1부터 선착순 40명/도서관 홈페이지 ‘제2기 춘천문학여행’으로 선착순 등록/문의 춘천시립도서관(☎245-510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신청

□ 대상 :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액 : 0 당 150원(연간 최대 250만원)

□ 접수 : 9월30일까지/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기술지원과

□ 문의 : 기술지원과(250-3817)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신청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7.11~9.24) 생활비대출(7.11~11.26)

□ 자격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참조

행사·보건

제1회 강원벤처창업한마당

□ 기간 : 9.18~9.19(호반체육관)

□ 참석 : 도민, 창업기업, 바이어 등

□ 내용 : 전시회, 토크콘서트, 창업경진대회, 경품추첨 등

□ 문의 : 강원대 창업지원단(☎250-8990)

나눔의 장터(바자회)

□ 목적 : 주변의 어려운 50여개 시설과 단체를 돕기위한 바자회

□ 일시 : 9.22(토)11시~9.23(일)10시~

□ 장소 : 천주교 춘천교구 죽림동성당 주차장

□ 내용 : 의류, 생활용품, 간식, 제과제빵, 농수산물, 음식마당 등

□ 주최 :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구곡폭포 토요일수속공연

□ 공연일시 : 토요일 14:30

□ 공연단체 : ▶9월8일(우리소리예술원, 통기타음악공간[봄봄]) ▶9월15일(춘천레이디스싱어즈, 그린비스) ▶9월22일(소양기타앙상블, 춘천그린악단) ▶10월6일(춘천색소폰동호회, 통기타어울림) ▶10월13일(강원에듀색소폰앙상블, 춘천포크기타앙상블)

□ 문의 : 261-0088

2012 책축제

□ 기간 : 9.15(토)~16(일)10~17시

□ 장소 : 춘천시립도서관 광장

□ 내용 : ‘책속에서 보물찾기’로 다양한 프로그램

□ 문의 : 춘천시립도서관(☎245-5109)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 행사내용 : 음악회, 출산용품 증정

□ 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임산부(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 일시 : 9.13(목, 14:30)

□ 장소 : 한림대 일송아트홀

□ 주최 : (사)월드휴먼브리지

□ 문의 : 모아사랑 춘천행사본부 (☎070-8260-6879)

제3회 강미회전

□ 시기 : 9.1(토)~9.6(일)목

□ 장소 : 춘천문화원 금병전시실

□ 내용 : 도내중견작가 25명의 전시모임 (한국화 서양화 조소 도예 등)

*9.8(토)~9.13(목)까지 갤러리 화천, 흥천전시 예정

고혈압 교실

□ 운영일시 : 매주 화(14시) 9.4/9.11/9.18/9.25

□ 장소 : 시민복지회관

□ 내용 : 고혈압의 이해, 식이·운동요법 등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과 (250-4561, 4034)

아기마사지 교실

□ 기간 : 9.12/10.10/11.14(14시)

□ 대상 : 3개월~12개월(25명/선착순)

□ 강사 : 김신정 교수(한림대학교)

□ 접수 : 보건소 건강관리과(☎259-1813)

임산부 요가교실

- 기간 : 매주 화 14시(10,9/10,16/10,23/10,30/11,6/11,13)
- 대상 : 임산부 30명 선착순(임신 20주이상)
- 강사 : 김송자(임산부요가 전문강사)
- 접수 : 9,3~(선착순)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259-1816)

모유 수유교실

- 기간 : 9,7~10,12(매주 금,13시)
- 내용 : 모유수유방법 개별지도 (수유자세교정, 울혈 마사지 등)
- 접수 : 선착순 마감(전화, 방문접수 가능)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259-1813)

노인 우울증 상담 및 검사

- 대상 : 시지역 노인
- 장소 : 춘천시정신보건센터(효제초교 앞)
- 문의 : 244-7574, 241-4256

결핵제로 캠페인

- 결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모이면 결핵퇴치에 큰힘이 됩니다
- “결핵, 생각보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www.tbzero.com)
- ▶ 결핵 무료 검진 : 연중 실시 (흉부 X-ray 및 객담검사)
- 문의 : 춘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실 (259-1755, 1757)

2012년 춘천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 대상 : 춘천시 표본가구 가구원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
- 기간 : 8,16~10,31
- 추진내용 :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등 조사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566)

후원 · 행정

장난감 · 교구를 후원해 주세요

-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이나 교구, 책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가정의 아동(0~만7세)에게 무료로 대여합니다.
- 전화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 문의 : 위스타트춘천마을(263-2850~1)

초록우산 춘천복지관 빈곤가정 지원

- 지원대상 : ▶ 경제적 위기에 처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 ▶ 가족구성원의 역할상

실로 외부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문제해결의 의지가 높은 아동과 가정

- 지원내용 : ▶ 보육, 학습, 의료, 주거안정 후원금 연계 ▶ 아동 및 가족 특성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문의 : 빈곤가정지원 담당자(242-0051)

주택연금 가입안내

- 대상 :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 1주택 소유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제외)
- 월지급금 :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예: 주택가격2억원, 연령70세인 경우 약 69만원의 월지급금 수령)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259-3600, 3615)

불법유통광고물수거 접수 · 보상안내

- 접수대상 : 만 65세 이상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수거 제외대상 광고물 : ▷ 신문지 전단 및 선거 ·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 · 공동주택 현관부착 전단 및 우체통 투입전단
- 접수장소 : 시청사 뒤 주차장
- 지침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통장 사본 1부
-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장당 벽보 100원/소형전단 50원/명함형전단 10원)
- 접수날짜(주민등록 상) : ▶ 석사 · 퇴계 · 강남동(9,10~9,12) ▶ 효자1 · 2 · 3동(9,13~9,14) ▶ 후평1 · 2 · 3동(9,17~9,18) ▶ 읍 · 면 및 기타 동 지역(9,19~9,20) ▶ 미접수 분(9,21)

제15회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 공모

- 부문 : 주거용 및 비주거용과 공공 건축물
- 대상 : '10,10,1~'12,9,30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 공모기간 : 9,13~10,12
- 문의 : 춘천시 건축과(250-3192)

결혼시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구간 : 휴면시아1 · 2차 아파트 앞~남춘천 사거리(자동CCTV)
- 일정 : 8,25~11,25까지(3개월간)
- 문의 : 교통과(250-3082)

제30회 춘천시민상 후보 추천

- 부문 : 문화예술/사회봉사/체육진흥/가화효친/농가소득/장애구복/산업경제
- 추천기간 : 7,18~9,10

- 추천자 :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 추천문의 : 춘천시 총무과(250-3824)

국민주택기금(주택개량) 용자 안내

- 대상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또는 대학가 노후(20년이상) 하숙집 개선(▶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 전용면적 85㎡이하(단독, 다가구, 다세대)
- 대출한도 : 단독 4천만원/다가구 1억2천만원/다세대 2천만원(▶ 이율 연3% , 3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대출문의:우리은행256-6061) □ 문의 : 춘천시 건축과(250-3192)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간 : 9,3~9,28
- 장소 :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내용 : 2012.1.1~6,30일사이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의 지번별 m²당 가격
- 문의 : 춘천시 지적과(250-3801,38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시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반기에 100여건에 해당하는 민원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신고접수 : 춘천시 복지2과(250-3314)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 과세대상 및 세액 : 개인세대주(동지역 4,950원/읍면지역 2,750원) 개인사업자(연총수입4,800만원이상, 5만5천원) 법인(단체포함, 5만5천원~55만원)
- 납부기간 : 8,16~8,31
- 문의 : 춘천시 세정과(250-3633)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 교육기간 : 9,10~9,15(14~18시)
- 지역 · 직장대 일정 : ▶ 9,10(10개 읍면,효자3동,신사우동) ▶ 9,11(교동,조운동,근화동,후평1동,효자2동) ▶ 9,12(야서동,후평2동,후평3동,강남동) ▶ 9,13(효자1동,석사동) ▶ 9,14(소양동,퇴계동) ▶ 9,15(직장대,기술지원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 신청대상 :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건물 각종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

□ 신청기간 : 연중

□ 납부기간 : 연2회

(상반기 9.30, 하반기 3.31)

□ 신청방법 : ▶방문접수(납세자가 거래계좌은행 직접방문) ▶인터넷 신청(금융결제원(www.giro.or.kr) 접속⇒회원가입⇒MY GIRO⇒자동이체신청⇒신규⇒준천시 지로번호 입력 7005192⇒등록하기⇒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출금 계좌번호 등록⇒신청하기

열린 무료강좌

이상벽과 함께하는 인생이모작 설계

□ 일시 : 9.13(목) 14시

□ 장소 : 강원도인재개발원(동면 만천리)

□ 대상 : 도민 누구나(신청순 200명)

□ 강사 : 이상벽(방송인)

□ 사전예약접수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edu.provin.gangwon.kr>) 팝업창

□ 문의 : 강원도인재개발원 ☎248-6276~8

알기쉬운 지방세 길잡이①

지방세는 아는 만큼 혜택

이번 봄내호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상식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몰라서 부담하던 가산세 또는 가산금, 비과세나 감면받는 방법, 미리내면 할인받는 세금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또한 지방세가 우리 지역에 쓰이는 용도 및 혜택 등을 살펴봄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생애 처음 취득한 집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나요?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얻을 때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단계(거래세) : 취득세(지방세)

▶ 보유단계(보유세)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 양도단계(거래세) : 양도소득세(국세), 증여세(국세), 상속세(국세)

(※ 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①취득세는 취득할 때에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거래세이며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종류는 매매, 상속, 교환, 증여, 상속, 지목변경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매에 의한 취득의 세율은 과표의 4%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단, 상속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이란 매매의 경우는 잔금지급일, 상속은 사용승인일,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사망일입니다.

②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내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과 부속토지는 합산하여 산정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50%씩 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주택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정과 250-3296]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춘천시민 화이팅! 춘천시민구단 화이팅!
우리모두 화이팅! 화이팅!



Daum 챌린저스리그 2012

춘천시민축구단 홈경기일정

경기일자	상대팀	경기장	경기일시
9월 01일(토)	춘천시민축구단 - 이천시민축구단	송암스포츠타운주경기장	17시
9월 15일(토)	춘천시민축구단 - 광주광산FC	송암스포츠타운주경기장	17시
10월 27일(토)	춘천시민축구단 - 포천시민축구단	송암스포츠타운주경기장	15시

순위	팀	승점	경기수	골득실	득점	실점	승	무	패
1	포천시민축구단	38	16	33	50	17	12	2	2
2	이천시민축구단	37	16	27	44	17	12	1	3
3	춘천시민축구단	37	16	23	38	15	12	1	3
4	청주직지FC	34	16	33	49	16	10	4	2
5	파주시민축구단	34	16	24	38	14	10	4	2
6	양주시민축구단	32	16	29	58	29	10	2	4
7	경주시민축구단	30	16	16	35	19	9	3	4
8	부천FC1995	29	16	16	35	19	9	2	5
9	예산유나이티드	23	16	9	43	34	7	2	7
10	서울유나이티드	22	16	0	39	39	6	4	6
11	전남영광FC	19	16	5	31	26	5	4	7
12	전주EM	18	16	-4	29	33	5	3	8
13	천안FC	15	16	-4	24	28	3	6	7
14	광주광산FC	13	16	-24	21	45	4	1	11
15	서울중랑코러스무스탕	13	16	-37	17	54	4	1	11
16	고양시민축구단	10	16	-19	31	51	3	2	11
17	남양주시민축구단	5	16	-40	19	59	2	0	14
18	서울FC마르티스	0	16	-87	17	104	0	0	16

무료입장으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행사일정

구 분	8.24 (금)	8.25 (토)	8.26 (일)	8.27 (월)	8.28 (화)	사전신청 기간
1	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전국등반축제		향로산			8. 15 까지
2	글·그림대회	송암스포츠타운 이벤트존				7. 2 ~ 8. 19
3	사진촬영대회	송암스포츠타운, 대룡산 활공경기장, 호반체육관 등				
4	뉴스포츠 체험 한마당	송암스포츠타운 잔디공원				
5	열린무대 시민자유공연	송암스포츠타운 이벤트존				5. 1 ~ 7. 31
6	물레길호수체험	의암호 호반낚시터 앞				
7	전통다례체험	송암스포츠타운 이벤트존				
8	페이스페인팅					
9	종이접기 및 냅킨아트 체험					
10	수상레저체험	송암스포츠타운 수상경기장				
11	독일인 예리, 김문숙 부부와 함께하는 춘천 자전거도로 이야기	송암스포츠타운				
12	풍력자동차 & 외륜선 만들기	송암스포츠타운 이벤트존				
13	미국 플로리다 수상스키쇼	송암스포츠타운 수상경기장				
14	뷰티플 헤어쇼	송암스포츠타운				
15	부메랑 만들고 날리기 체험	송암스포츠타운(보조경기장 아래)				
16	기후변화를 대비한 기상사진전	송암스포츠타운 종합상황실				
17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송암스포츠타운 이벤트존				
18	빙상체험교실	의암빙상장				
19	동력패러글라이딩 시범비행	송암스포츠타운 수상경기장 수변				
20	쇼트트랙 국가대표 팬사인회	의암빙상장 입구 행사부스				



춘천 닭갈비 막걸리 축제

2012 CHUNCHEON DAKGALBI & MAKKUKSU FESTIVAL

- 일 시 : 2012년 8월 23(목) ~ 8월 28(화)
- 장 소 :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대회일정

구 분	8.24 (금)	8.25 (토)	8.26 (일)	8.27 (월)	8.28 (화)
인라인슬라럼	본대회 데모쇼(이벤트)				
액션스포츠		본대회 데모쇼(이벤트)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본대회				
스포츠클라이밍		본대회			
패러글라이딩		본대회 동력 패러 시범비행			
모형항공기		본대회			
인라인스케이팅		어린이대회 장관기대회			
쇼트트랙		본대회 국가대표시인회			
아이스하키		본대회		본대회 빙상체험	
풋살		본대회			
족구	본대회				
궁도	본대회				
테니스				본대회(8/27~9/2)	
배드민턴		본대회			
축구		본대회			
야구		본대회			



춘천월드레저대회 조직위원회

Chuncheon World Leisure Sport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24 / (033)250-4640

www.c-leisure.org